

[보도자료] 쿠팡 로켓프레시, 과일 약 450톤 매입해 할인 와우회원 물가부담 덜어줘

2024. 3. 12.



- 일주일간 딸기 120톤, 오렌지 180톤, 참외 150톤 매입해 할인 판매
- 로켓프레시, 제품군 확대하며 와우회원 할인 혜택도 늘려

2024. 3. 12. - 쿠팡이 딸기, 오렌지, 참외 등 과일 약 450톤을 매입해 로켓프레시로 할인 판매한다. 로켓프레시는 와우회원만이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로 식재료부터 과일, 베이커리, 아이스크림까지 다양한 신선 식품을 새벽배송, 당일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쿠팡은 과일값 상승으로 인한 와우회원의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해 사과, 오렌지, 참외를 대량 매입해 '시즌과일찬스' 행사를 진행한다.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위해 쿠팡은 딸기 120톤, 오렌지 180톤, 참외 150톤을 매입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할인가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딸기 800원 할인 쿠폰, 참외 2,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할인 쿠폰은 1인당 하루에 2장씩 제공된다. 대표상품은 ▲한판 딸기(대과) 500g 6,990원(할인 쿠폰 적용가) ▲2단 딸기(중과) 500g 5,990원(할인 쿠폰 적용가) ▲퓨어스펙 고당도 오렌지 3kg 1만5,900원 ▲성주 당도선별 참외 1.2kg 9,800원(할인 쿠폰 적용가) 등으로 3월 첫째주 대비 약 3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로켓프레시는 품질전문가의 엄격한 검수를 거쳐 과일을 선별해 고객이 균일한 품질의 상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고물가 속에 과일값이 뛰면서 쿠팡이 마련한 과일 할인 행사가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과일값은 전년 동월보다 38% 넘게 뛰면서 3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농가 고령화 등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감소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과일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쿠팡 로켓프레시는 지난 2022년 이래 다섯 차례에 걸쳐 약 1300여톤의 못난이 과일과 채소 등 판매시기를 놓친 과일을 농민들로

부터 매입했다. 지난해 10월 악천후 피해 등으로 버려질 위기에 처한 과일 약 250톤, 무·당근·오이·파프리카 등 18종의 못난이 채소를 강원 평창·전북 익산·경남 창녕 등에서 약 370톤을 매입했다. 특히 우박이나 냉해 피해를 입어 흠집은 있어 일반 상품과 비교해 30~40% 가량 저렴한 ‘우박 사과’ ‘보조개 사과’ 등을 대거 직매입했고 판매가 활성화됐다.

쿠팡 관계자는 “로켓프레시는 2019년 론칭 후 제품군을 꾸준히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하면서 와우회원 혜택을 강화해 왔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우수한 품질의 과일을 합리적인 가격과 쿠팡만의 빠른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상품은 쿠팡 앱에서 ‘딸기’ ‘오렌지’ ‘참외’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